

쌍용양회 임직원 “임금 자진반납”

대표이사는 임금의 30% 반납키로 ... 임원 20%에 사원도 10%

시멘트 생산기업에도 경기침체의 한파가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.

쌍용양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전 임직원들이 2009년 임금의 10-30%를 자진 반납하기로 했다고 1월19일 밝혔다.

쌍용양회 노사는 최근 <위기 극복을 위한 한마음 선언>을 발표하고 직급별로 대표이사 30%, 임원 20%, 일반사원 10%의 임금을 반납하기로 했다.

쌍용양회는 또 2009년 경영방침을 <초긴축 내실경영>으로 정하고, 경제위기와 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해나가기로 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1/20>